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

1·2 월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Creating a Better Future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한국한센총연합회 소개

한국한센총연합회는

1969년 10월 13일 발족되어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핵심가치

- HARMONY** — 한센가족과 HARMONY 국민 모두의 소통을 통한 편견 해소
- HOPE** — 한센가족의 사회통합과 재활에 대한 소망 실현
- HAPPINESS** — 전 세계 한센가족의 인권과 복지 증진

비전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미션

- 한센인의 보건 복지 증진
- 한센인의 권익 보호 강화
- 한센인의 사회 통합 지원
- 한센인의 인권 신장 확대

사업목표

- 한센인 관련 법, 제도 등의 개정 및 제정
- 한센인의 보건복지 등 삶의 질 향상
- 한센 관련 단체와 연대 강화
- 한센인(병)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 한센인 권익 증진
- 한센인 사회 통합 지원
- 미래지향적인 한센정책 수립
- 국제 교류 협력 확대
-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한센 관련 정책을 통한 주도적 위상 제고

사업소개



한센가족(hansen)을 상징하는 'h'로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가 눈높이를 맞춰 소통으로 하나되고 대한민국 한센사업의 통합과 한센가족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 실현을 위한 열정을 형상화함

총연합회 공식 SNS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CONTENTS

한센포커스

02 인사말

-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

08 한센 리포트

- 시도지부장 회의
- 2025년 정기감사
- 정기 이사회
- 한센인과 함께하는 희망의 평생교육 여정

04 스페셜 리포트

- 2025 시무식 및 신년하례예배
-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간담회

- 희망과 공존을 향한 한센인 복지사업
- 한센인 구술 기록화 사업 추진
- 2025년 한국한센총연합회 주요 사업
-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한센탐방

28 지부는 지금

- 대구·경북지부 · 경기지부 · 서울·중부지부

35 관계단체동정

- 한국한센복지협회
- 한국IDEA협회

한센공감

36 함께하는 한센

- 시작하는 마음으로_박우택(서울·중부지부장)
- 사는 인생_신재문(영락마을)
- 후회_김현수(익산마을)
- 한센 어르신들과 짜장면집 나들이_김종신
(산청성심원 명예기자)

43 소통하는 한센

- 세계 한센병의 날

한센이모저모

48 정보알리미

- 심근경색증_김원
(경희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교수)
- 국가예방접종
- 요즘이책

60 독자들의 공간

- 치매 예방 학습자료
- 한센게시판
-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2025년,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



사랑하는 한센 회원 여러분!

새해의 희망찬 빛과 함께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푸른 뱀은 지혜와 유연함, 그리고 끝없는 재생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한 해가 지혜와 희망으로 가득 차고, 어떤 어려움도 유연하게 극복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노력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센인 복지과 인권 증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총연합회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총연합회는 새해에도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센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한센인의 삶과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한센인 구술 기록화’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한센병으로 인한 어려움과 차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일구어오신 한센인들의 소중한 생애사를 구술로 채록하고 이를 책으로 제작하여 역사적 자료로 보존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한센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기억해야 할 귀중한 가치를 남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한센인의 신체 능력이 저하되고, 건강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치매예방교육,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과 같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정착마을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복지사업과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삶을 함께 걸어가고 계신 한센인 부부들을 위한 합동결혼식을 개최하여 새로운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며, 독거 한센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인 돌봄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독거노인 돌봄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더 큰 행복과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센 회원 여러분!

우리는 많은 후회와 환희, 슬픔과 기쁨의 순간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후회는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고, 환희는 삶의 활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슬픔은 삶의 소중함을 일깨웠고, 기쁨은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총연합회는 한센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함께하는 힘이 더 큰 행복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온화한 안정이 깃들고, 미소가 활짝 피어나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새로움을 품고 나아가는 푸른 뱀처럼, 여러분의 앞길이 지혜롭고 빛나는 도약의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 이길용

한센 가족과 함께 소망 가득한 2025 시무식 및 신년하례예배



1월 2일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임직원 및 관계자, 센터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한센총연합회·한국IDEA협회·한국한성장로회가 공동 주최한 ‘2025 시무식 및 신년하례예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희망찬 새해를 맞아 한센 가족과 관계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한 해의 비전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는 총연합회 우흥선 사무총장의 사회로 1부 신년 하례예배와 2부 시무식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에서는 신촌교회 전종호 목사가 ‘소망의 하나님’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진 2부 시무식에서 이길용 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한 해,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우리 한센 가족들과 총연합회가 난관을 극복하며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라며 “올해도 한센 가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위로지원금 증액, 일본 정부 대상 피해보상 추진, 법·제도 개선 등 중요한 과제를 함께 이루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신촌교회와 한국IDEA협회는 한센인 지원을 위한 뜻깊은 나눔의 일환으로 에버그린 사회복지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새로운 한 해의 비전을 공유하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한센인 권익 향상과 정착마을 복지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우리 총연합회는 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한센유관단체 관계자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년간 한센인 권익 보호 및 정착마을 환경·복지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을 비롯하여 이사 및 지부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센인들과의 과거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2021년 12월 권익위가 발표한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마을 환경·복지 개선 종합대책’의 권고 및 이행 성과를 공유하며, 정착마을 한센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다짐했다.

간담회는 ▲성과 발표 ▲현안 과제 공유 ▲현안 의견 청취로 구성되었다. 권익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센인 권익 향상을 위해 추진된 성과를 강조하며, “정착마을 한센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가 지난 몇 년간 해결한 주요 민원 사례에 주목했으며, 이는 영광군 영민마을의 축산악취 갈등 조정 및 여수 도성마을의 환경문제 해결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정착마을 주민들의 환경 및 복지 개선에 실질적 성과를 보여줬으며, 여수, 안동 등 주요 지역에서 약 300억 원 규모의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정착마을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앞으로도 한센옴부즈만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 점검 및 정착마을 컨설팅을 통해 한센인 권익 향상과 갈등 해소에 지속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한센인 정착마을 및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고령 주민들의 지속적인 고충과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현장에서의 생생한 의견을 공유했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력이 한센인들의 복지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며 “앞으로도 정착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관계자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함께 오찬을 나누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앞으로도 우리 총연합회에서는 한센인들의 권익 보호와 정착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다.

2025년 도약을 위한 시도지부장 회의



1월 22일 충북에서 시도지부장이 한자리에 모여 총연합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진행되었다. 이길용 총연합회장을 비롯한 시도지부장은 2025년 총연합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총연합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 계획 수립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지역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길용 총연합회장은 “이번 논의가 지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업 계획으로 이어져 총연합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2025년은 총연합회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연합회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각 지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과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5년 정기감사

2월 5일, 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감사 규정에 따른 정기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감사는 김용 감사의 주재하에 관련 자료 제출과 현장 질의응답이 병행되었으며, 감사 대상은 총연합회의 총무·회계·사업 등 주요 운영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감사에는 감사 자문을 위해 이영기 변호사와 서중희 변호사가 참석하여 대의원 총회 일정 및 임원선거 등 총연합회의 정관과 재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총연합회의 정관은 타 유사 사단 법인의 정관과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특별히 개정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다만, 정관 제23조에 명시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각각 ‘한정 피후견인’

과 ‘성년 피후견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의결 절차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감사를 통해 총연합회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용 감사는 “총연합회의 체계적인 관리와 철저한 운영을 통해 신뢰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총연합회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기 이사회 개최



총연합회는 2월 21일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이길용 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총연합회와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의 ▲제1호의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2호의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 ▲제3호의안 임원선거를 결의하였으며,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원선거총회를 3월 31일에 동시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한센인과 함께하는 희망의 평생교육 여정



우리 총연합회는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과 기술 변화의 가속화 속에서 한센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노년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에도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센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치매예방교육’,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의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한센인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치매예방교육: 기억을 지키는 배움의 장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4년 기준 993만 8천 명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하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유병률 또한 증가 추세여서 특히 평균 연령 81세의 한센인 어르신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높으며, 이에 총연합회는 한센인 정착마을을 대상으로 전문기관과 협력해 치매예방교육을 제공한다.

치매예방교육은 15회기에 걸쳐 진행되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하고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리적 소외와 장애로 인해 교육 접근이 어려운 한센인들에게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한 노년을 지원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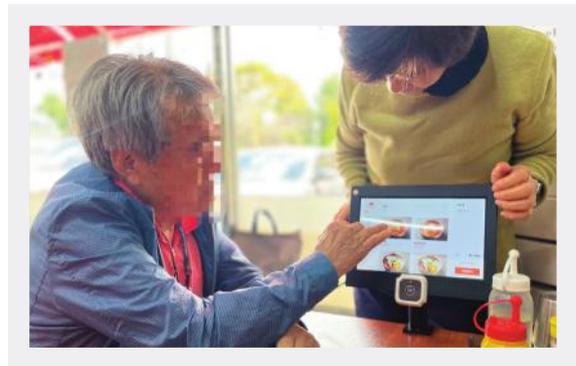
▲ 치매예방교육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스마트한 노년, 활기찬 삶

고령과 장애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한센인 어르신들에게는 다양한 생활 교육이 필요하다. 정착마을 한센인 중 53.7%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노년 생활플러스교육’이 마련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생활·행복플러스교육의 세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며, 한센인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성을 높이고,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건강플러스교육은 낙상 예방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며, 생활플러스교육에서는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IT 기기 활용법을 교육해 사회 적응력을 강화한다. 또한 행복 플러스교육은 공예, 놀이, 요리 등을 통해 배움의 기쁨과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안전한 이동의 시작

2023년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전동보장구 사용자 중 약 73.8%가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위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한센병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한센인 어르신들이 많아, 안전사고예방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이 필요하다.

이 교육은 전동보장구 수리 전문 업체와 협력하여 진행된다. 전동보장구의 올바른 사용법, 사고 예방 방법, 안전 점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동보장구의 외관, 전기, 기계 점검을 통해 적합한 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2025년 한센인 평생교육사업은 한센인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교육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며 치매예방교육을 통해 기억을 지키고, 노년 생활플러스교육으로 배움의 기쁨을 나누며,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으로 안전한 일상을 지원한다. 이는 한센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사회에서의 자립과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한센인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지원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다.

희망과 공존을 향한 한센인 복지사업



우리 총연합회는 한센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희망과 행복을 선사하는 여정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한센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통합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한센인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적 혜택과 도움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정착마을의 거주민들은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며, 문화적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는 ‘찾아가는 문화복지’ 사업은 마술·품바 공연·태권도 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진행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한센인들에게 활기차고 즐거운 노년기를 선물하며,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 찾아가는 문화복지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한센인 커플들을 위한 ‘한센인 합동결혼식’은 10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단순한 결혼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예복과 헤어·메이크업, 야외 촬영, 호텔 숙박 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한센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 한센인 합동결혼식

5월에는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 인근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65세 이상 한센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들은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링, 의상 제공, 사진 촬영, 이미지 보정, 액자 제작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한센인들은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정서적 안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연결망 형성도 도모한다.



▲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더불어, ‘한센인 독거노인 돌봄’ 사업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65세 이상의 독신 한센인 60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안부 전화로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숨겨진 문제를 발굴하고 위기 상황을 예방하며, 소외와 고립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한센인들이 정서적 만족감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총연합회의 2025년 복지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한센인들이 존중받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프로그램은 한센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행복한 노후와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다.

한센병의 역사와 삶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다 한센인 구술 기록화 사업 추진

총연합회는 2025년 신규 사업으로 한센인의 생애사를 기록하는 ‘한센인 구술 기록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과거 한센병으로 인한 격리와 사회적 차별 속에서도 삶을 일구어온 한센인들의 개인적 경험과 생활사를 구술로 채록하고 이를 책으로 제작해 역사적 자료로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한 개인의 삶은 그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서, 한센인의 미시적 생애사를 수집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가적·역사적 기록을 확립하고자 한다.

한센인 구술 기록화 사업은 정착마을과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한센인, 재가 한센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구술 전문가가 심층 면담을 통해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조사하고 기록한다.

구술 내용에는 한센병 발병과 치료, 정착 과정, 노동, 공동체 생활, 차별과 편견, 그리고 피해 사건 등에 대한 기억과 이야기가 포함될 예정이다. 구술 자료는 이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책으로 제작되며, 총 100부가 발행될 계획이다.

구술 기록화 사업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한센인의 거주 지역에서 심층 면담이 이루어진다. 한센인의 구술 가능 여부를 고려해 충분한 인원을 섭외하며, 구술 기록화 대상자 선정은 홍보와 신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수집된 자료는 생애사로 정리되고,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책은 한센병 관련 연구와 자료 보존을 위한 귀중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한센병과 관련된 역사와 한센인의 삶을 재조명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센인의 생애사와 사회적 관계, 공동체 문화에 대한 심층 연구의 기틀을 마련해 한센병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센병에 대한 고찰과 이해가 깊어지길 바란다.”라며 “한센인들의 소중한 삶의 기록이 역사 속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센인 구술 기록화’ 사업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한센인들이 겪어온 어려움과 희망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시각을 넓히고 역사적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한눈에 보는 2025년 한국한센총연합회 주요 사업

우리 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며, 인식 개선과 기록을 통해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

치매예방교육



치매 예방에 유익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생활 속 치매 예방 습관을 익히고 노년기의 건강과 행복감을 증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사업시기 2025년 3월~6월

대 상 교육을 희망하는 정착마을 1개소

내 용 치매예방교육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한 교육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건강 위험 및 낙상 예방 교육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를 지원하며, 사회 적응력 강화와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시기 2025년 8월~11월

대 상 교육을 희망하는 정착마을 1개소

내 용 건강증진, 낙상예방, IT 기기 생활 활용 교육(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 등), 공예놀이, 요리 등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한센인의 전동보장구 사고를 예방하고,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며, 적절한 사용 안내로 수리 비용 절감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교육

사업시기	2024년 4월, 6월, 9월
대 상	사업을 희망하는 정착마을 3개소
내 용	전동보장구 안전 교육, 안전 점검 등

한센인 복지 사업

찾아가는 문화복지



정착마을로 찾아가 다양한 문화 공연 등을 선사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프로그램

사업시기	2025년 4월
대 상	정착마을(1개 마을 및 2개 마을 이상 연합 가능)
내 용	찾아가는 이동식 문화공연 프로그램(마술, 품바, 태권도 공연 등)

한센인 합동결혼식



결혼식을 통해 정신적 안정감 및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며, 한센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회 제공

사업시기	2025년 10월
대 상	전국 한센인 중 희망자 4쌍 내외
내 용	예복, 헤어 및 메이크업, 야외촬영, 호텔 1박 등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건강과 장수 기원의 의미를 담아 장수 촬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와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시기 2025년 5월

대 상 정착마을 거주자(재가 한센인 포함) 중 65세 이상 한센인 및 배우자

내 용 메이크업 및 헤어드라이, 의상 제공, 사진 촬영, 액자 제작 등

독거노인 돌봄사업



한센인의 숨겨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여 위기 극복, 소외와 고립 문제 해결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 향상을 위한 사업

사업시기 2025년 4월~11월

대 상 65세 이상 한센인 중 독신가구 60명

내 용 건강 상태 및 생활 환경 개선 사항 확인, 개인의 생활사와 건강 변동 사항 기록

기획·홍보 사업

전국 한센인의 날



한센인(병)에 대한 대국민 의식 제고 및 국가한센병사업을 홍보하고 한센인 간 친목 교류 및 화합의 장 제공

사업시기 2025년 5월

대 상 전국 한센인 및 가족, 정부 및 관계 기관 등

내 용 기념식, 한센 복지증진 유공자 정부 포상, 한센사랑 축제마당(노래자랑, 윷놀이 등), 추억만들기(한컷 사진) 등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



한센인(병)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 법안 제정, 홍보 정책 개선 및 한센병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위한 기초 데이터 마련

사업시기 2025년 4월~7월

대 상 일반 국민 600명

내 용 한센인(병)에 대한 인지 및 이해 정도, 차별 해소를 위한 고려사항, 정보 습득 및 홍보, 정착마을에 대한 기본 인식, 한센인 피해사건 관련 특별법에 대한 인지 및 각종 지원에 대한 인식 조사

대중매체 모니터링



한센인(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편견 해소를 통한 인식개선 기회 제공

사업시기

연중 실시

대 상

대중매체 (TV방송, 라디오, 신문 등), 종교 단체 등

내 용

모니터링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 정확한 정보로 수정

홍보매체운영



오프라인 매체(한센지, 언론보도 등) 및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SNS 등)를 통한 친근한 이미지 제고와 한센인(병)에 대한 정보제공, 이용자 참여 및 자원 연계를 증진하기 위한 소통 창구의 구축

사업시기

연중 실시

대 상

한센인, 관계기관, 정부기관, 일반 국민,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내 용

총연합회 소식과 공지 사항 전달 및 한센 사업 및 성과 소개, 한센인(병)에 대한 정보제공, 한센 관련 내용의 역사적 자료 보존, 한센인들의 문학 작품을 통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한센인 구술 기록화



한센인의 생애사를 구술 녹취 및 전사하여 기록화하고, 이를 통해 한센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며,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심층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마련

사업시기

2025년 4월~11월

대 상

생애사 구술 희망 한센인(정착마을, 재가, 생활시설 등)

내 용

한센인의 생애 구술 기록화, 책 100부 제작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1 일본 한센 가족들에 대한 보상 판결

일본 정부는 과거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노동을 당한 한센피해자들에게 일본 한센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 있음

이후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구마모토 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상청구소송 또한 2019. 6. 28. 승소 판결하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취지에 따라 2019. 11. 15. 한센병원환자가족보상법을 제정하여 한센인 가족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격리 정책으로 인한 한센 가족 피해를 인정하고 사죄·반성을 표하면서, 한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그 명예 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센가족보상법 제정

2 보상 청구의 내용

보상금은 친자, 배우자 180만엔, 형제자매 130만엔 등
청구시한은 2029. 11. 21.까지(한시법)

3 보상 대상자

가족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하 대상자)는 일제강점기하에 한센병이 발병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이하 원환자)의 가족이어야 하며,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서 생존하고, 한센병 발병여부 불문(한센인, 비한센인 여부 불문), 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혼인일이 1945. 8. 15. 이전이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 원환자는 1945. 8. 15. 이전 발병자로서 소록도 입소 및 사망 여부 불문, 원환자가 일본으로부터 소록도 보상을 받은 경우도 가능(대상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

4 청구시 필요 서류(예시)

- ① 원환자 일제하 한센병 발병사실 증명서류
 - 한센등록(관리)카드, 한센사업기록표, 나병력자 관리카드, 소록도 입소 증명서, 교적부, 세례명부, 소록도 보상결정문 등
- ② 대상자가 원환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일제 또는 해방후 구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③ 대상자가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 생존한 사실
 - 주민등록 초본
- ④ 대상자 은행계좌 사본
- ⑤ 기타 입증서류

5 안내 및 문의

현재 한국 변호사들은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을 구성(단장 조영선 변호사)하여 일본 변호단과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음 2025. 2. 19. 기준 152명(1차 62명, 2차 63명, 3차 14명, 4차 1명, 5차 3명, 6차 5명, 7차 4명)의 서류를 일본에 송부하였고, 94명이 보상 결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보상심의 중임
한센인 가족 피해보상은 한센인과 그 가족들이 당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보상임
청구인이 고령자이므로 신속하게 서류 준비 필요(청구인은 일본 정부에 서류를 접수하는 날 기준으로 생존해야 함)

문의사항 한국한센총연합회

전화 1566-2339 / 팩스 : 1566-2032

대구·경북지부, 제36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미래 비전과 협력 다짐



총연합회 산하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안영철)는 지난 12월 27일 지부 사무실에서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을 비롯해 대구·경북지부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총연합회장과 지부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안건 상정 및 결의, 지부 운영 방안 논의 등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 성과를 평가했다. 아울러 2025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감사보고와 2024년 결산안 및 2025년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대구·경북지부가 보여준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큰 나눔과 협력을 실천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안영철 지부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회원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며, 2025년에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부의 발전과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결의를 다졌다.

제36차 정기대의원 총회는 대구·경북지부의 단합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



▲대구·경북지부 안영철 지부장

경기지부, 한센인 복지 증진 방안 논의 정담회 개최



총연합회 산하 경기지부(지부장 최광현)는 1월 13일 지부 사무실에서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과 정담회를 열고, 한센인 복지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2025년도 예산 검토, 그리고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광현 지부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한정희 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센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논의된 주요 사안으로는 ▲2025년 예산 조정 ▲2026년도 한센인 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증액 요청 ▲양평군 정착마을 내 노후 분뇨처리시설 교체를 통한 환경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

최광현 지부장은 “한센인 정착마을은 긴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견뎌온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복지 사업 예산 확대는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완규 도의원은 “한센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라며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한센인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담회는 한센인 복지 증진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됐다. 김 의원은 끝으로 “한센인을 위한 예산 확대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지부, 대표자 회의 개최



총연합회 산하 경기지부(지부장 최광현)는 2월 13일, 이길용 회장을 비롯하여 지부 고문 2명, 경기지부 소속 정착마을 대표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광현 지부장 인사말, 이길용 회장의 축사, 경기지부 업무 보고 및 기타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5년경기지부 예산 증액,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가족 보상 청구 시한 연장, 한센인 2세 현황 접수, 정착마을 고충 민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광현 지부장은 “지부와 총연합회가 긴밀히 협력해 한센인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길용 회장은 “경기지부가 한센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힘써 왔다.”라며 “특히 지난 몇 년간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온 경기지부의 노력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경기지부가 한센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총연합회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부지부,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청주중앙라이온스MJF클럽(회장 오세욱)은 1월 23일 설 명절을 맞아 총연합회 산하 서울·중부지부(지부장 박우택)가 운영하는 충광마을(대표 최종현)에서 떡국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설을 맞아 이웃 간의 온정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청주중앙라이온스MJF클럽과 서울·중부지부의 협력으로 성사되었다. 행사에는 박우택 서울·중부지부장, 박행남 이사, 충광마을 최종현 대표, 청원마을 장경선 대표, 청주중앙라이온스MJF클럽 오세욱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박우택 지부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청주중앙라이온스MJF클럽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정착마을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청주중앙라이온스MJF클럽 오세욱 회장은 “지역사회의 어르신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7일에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청주백합MJF라이온스클럽(회장 우희숙)과 회원들이 청원마을(대표 장경선)을 방문해 뜻깊은 김장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청주백합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재료로 김치를 담그며 구슬땀을 흘렸다. 담근 김치는 청원마을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겨울철 따뜻한 식탁을 책임졌다.

우희숙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청원마을 장경선 대표는 “해마다 잊지 않고 찾아와 도움을 주시는 청주백합라이온스클럽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런 나눔이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라고 전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는 앞으로도 각 지역 및 지대 관할 클럽들과 함께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의 희망을 전할 계획이다.



한국한센복지협회 회장에 이영찬 前 보건복지부차관 취임



▲ 한국한센복지협회
이영찬 회장

한국한센복지협회에 이영찬 전(前) 보건복지부 차관(現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취임. (24년 12월 13일, 대의원총회 선출) 임기는 3년(2025년~2027년)으로 2025. 1. 1.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이영찬 신임 회장은 제27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보건복지부에 임용되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행정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등을 역임한 정통 행정관료다.

특히 이 회장은 복지부 차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등 보건의료·복지 정책책임자로서도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한국IDEA협회, 필리핀에서 사랑 나눔 행사 개최



한국IDEA협회(회장 정상권)는 1월 24~27일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해 깔라오칸시 딸라 신석교회와 산페드로 시청 홀에서 사랑 나눔 감사예배를 드리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IDEA협회를 비롯해 평남노회장로회(회장 호순흥 장로), 전국남전도회연합회(회장 배원식 장로), 전국 원로·은

퇴장로회연합회(회장 권영근 장로)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정상권 회장과 관계자들이 한센인 및 시립어린이집 교사 300명에게 생필품을 나눴다.

정상권 회장은 “예수님과 복음을 따르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필리핀의 큰 인재로 성장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산페드로시 아트 메카르도 시장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IDEA협회는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3개 지역에서 추가 생필품 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작하는 마음으로

박우택(서울·중부지부장)

신변 벽두, 그날이 그날 같을 수밖에 없는 노년의 삶이지만, 새해를 맞아 무엇이든 도전해 본다면 조금은 더 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걷기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인간은 한평생 보고 듣고 배우며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렇게 발전하고 성장해 간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순간일 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앞에 가끔은 슬퍼지기도 한다.

그러나 시작은 신중하게, 끝은 깔끔하게,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오늘도 살아간다. 암울했던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며, 잡초처럼 뽑혀 나갈 것만 같았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운명에 도전해 오늘의 성공적인 삶을 이룩해냈다.

이제는 이 행복을 함께 누리고 지켜야 할 때이다. 건강은 필수이고, 친구와 돈은 선택이다. ‘전답을 팔아서라도 친구를 사라’는 말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이정표다.



사는 인생

신재문(영락마을)

함께 세상을 사는 동안
친구에게 친절을 베풀고
편안함과 기쁨을
나누고 싶어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지난날들을 아쉬워하며
이제라도 새로워진 마음으로
참되고 거짓 없이 살고 싶네

하루에도 늘 대하는 이웃
대화는 없어도 서로 의지하며
바라보는 눈가에
한마음 되어 기뻐지네

오늘도 세월 따라가는 인생
잘나고 못생긴 것 차별 없이
서로 위로하며 동행자로
가는 세월 즐겁게 살고 싶어라

후 회

김현수(익산마을)

내 가슴 안에는
두 명의 여인이 있다

하나는
나를 낳아 길러주신
어머니이고

다른 하나는
살을 맞대고
반 백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이다

이들이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서

하나같이.
마지막 눈을
쓸어 감겨 주지 못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센 어르신들과 짜장면집 나들이

김종신(산청성심원 명예기자)



12월 12일, 내가 일하는 경남 산청 성심원(원장 엄삼용 알로이시오 수사)에서 한센 어르신들과 짜장과 짬뽕을 먹으러 산청 읍내로 다녀왔다. 기껏 짜장과 짬뽕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나들이인지 모른다.

고령의 한센 어르신들에게는 일상 속 사회 나들이가 여느 사람들처럼 쉽지 않다. 한센인이라는 편견의 벽이 허물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제는 이분들을 바라보는 편견과 차별의 색안경이 하나둘 사라졌지만, '세월이 무상하더라'라고 고령과 장애로 한 걸음 두 걸음 떼기도 벅차다.



여느 어르신들처럼 치매도 걱정스러운 산청 성심원 한센 어르신들은 올해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끝내고 한 해도 마무리할 겸 겸사겸사 성심원 미니버스를 타고 읍내 나들이를 했다.

읍내에서 가장 맛있다는 짜장면집이 배달도, 포장도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세상 속으로 나오는 계기를 만들었다. 원내 버스 안에서 10분 거리의 읍내로 나가는 풍경이 왠지 낯설다. 멀리 나들이로 나가는 듯 들쭉인다.

짜장면집 앞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가 몇 개의 턱을 지난다. 힘겨운 걸음은 이웃과 직원이 함께 손을 맞잡고 더불어 식당 안으로 들어간다. 식당 한쪽에 앉자, 어르신과 함께한 신발들도 가지런히 나란히 함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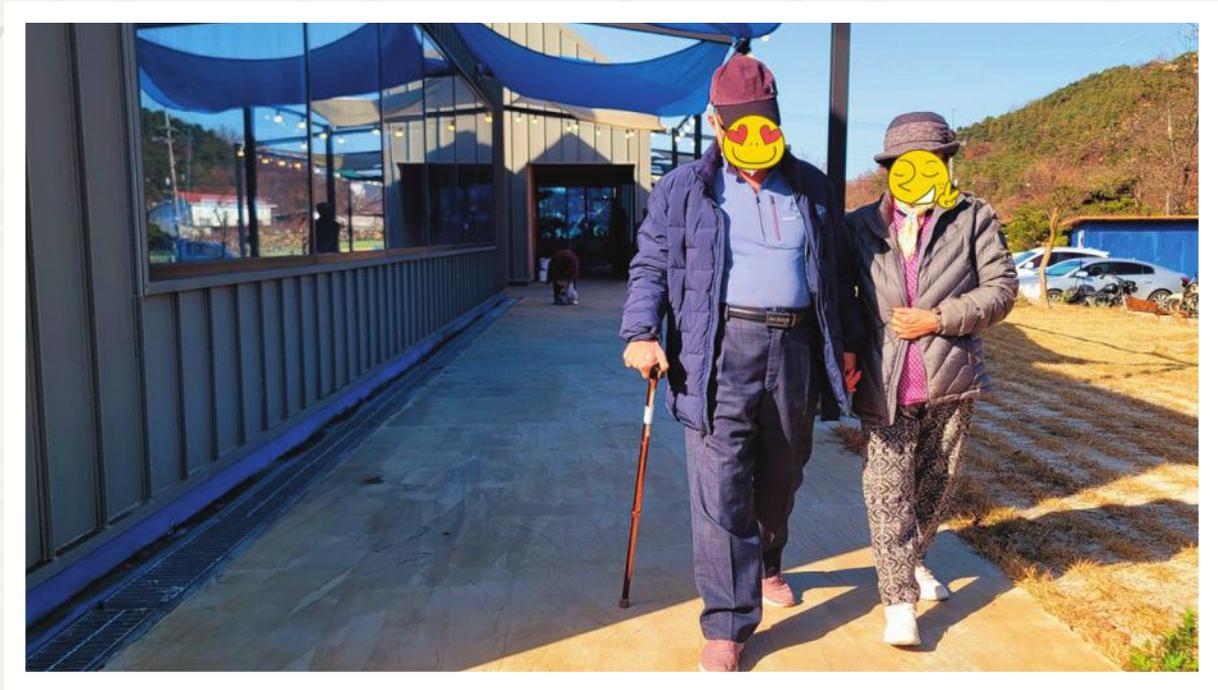
먼저 탕수육이 나와 쫄깃한 맛으로 입맛을 돋웠다. 이어 짜장밥과 짬뽕밥이, 마지막으로 짜장이 나왔다. 식사할 때는 조용하다는 데 여기는 시장터가 따로 없다. 커피숍도 아닌데 ‘라테~’가 여기저기 나온다. 한창때는 몇 그릇을 먹었다는 먹은 자량이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온다.



식사를 마친 뒤, 원내 버스는 읍내를 에둘러 커피숍으로 향한다. 문을 열자 향긋한 빵 냄새와 함께 커피 향이 우리를 반긴다. 바닐라라테와 고구마라테가 제일 많이 선호하는 음료이고, 생강차, 대추차 등이 곁들여진 테이블마다 덩달아 바깥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꽃이 핀다.

창 너머 경호강이 보이고 기분 좋게 차를 마신다. 앉아 있다 보면 우리와 음료수 사이에는 가깝지만 보이지 않던 이웃이 보이고 더불어 아득히 먼 어느 곳의 평화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 최동인 복지사가 “올해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을 모시겠다.”라고 인사하자, 어르신들의 박수 소리가 요란하다.



여느 어르신들과 사회생활 하는 이들에게는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운 일도 한센 어르신들에게는 힘겹다. 차를 마시는 것처럼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다반사 같은 일들이 한센 어르신들에게는 어렵다. 한센병으로 인한 후유 장애와 이제는 나이 무게만큼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아 주위의 도움을 받아 생활한다.

박 레아 어르신은 오늘 우리가 타고 간 미니버스가 “해피버스”라며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함박웃음 지으며 엄지척을 하신다.

추억도 쌓고 속 깊은 얘기도 나누는 짧지만 긴 나들이였다. 일상 속 작은 씬표가 되어준 읍내로 마실 떠난 시간이다. 한센 어르신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다. 무더진 일상의 감각을 깨우고 아름다움을 느낀 하루였다.

2025년 1월 26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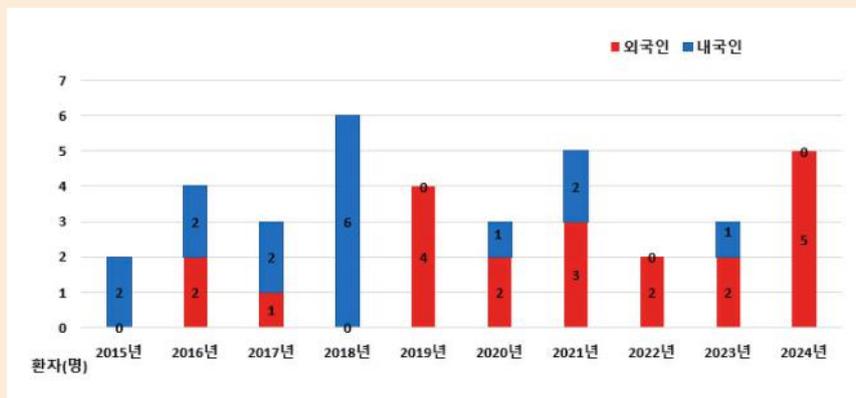
매년 1월 마지막 주 일요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 (World Leprosy Day)'이다. 올해로 72회를 맞이한 이 날은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한센병은 나균에 의한 감염병으로, 다중약물치료요법(일반적으로 3종류 약제)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 신환자는 2023년 한 해 동안 182,815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71.9%인 122,227명은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보고되었다.

* 출처 : Global leprosy update, 2023(WHO) (2024.9월 발표)

국내에서는 2008년 이후 한 자릿수 신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5명(외국인 5명)의 한센병 신환자가 모두 외국인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국내 한센병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신환자 발생 : ('08년) 7명 → ('12년) 5명 → ('18년) 6명 → ('24년) 5명



한센병 내·외국인별 신환자 발생현황(2015~2024년)

●○○한센병 퇴치와 환자 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노력

질병관리청은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재발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센병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위해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 검진 횟수를 기존 12회에서 15회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결핵, 에이즈 등 타 감염병과 통합 검진을 시행하여 검진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가톨릭한센병연구소와 한국한센복지협회는 이동·외래·입원 진료사업을 통해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약 37만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센병 치료는 종료되었으나 재활 및 재발 관리가 필요한 고령 환자들을 위해 의료 지원과 더불어 생활환경 개선 및 생계비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 한센병 사업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80.9세로, 노후화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환자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재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한센병사업 생활환경 개선 사업 주요내용>

사업명	주요내용
한센병재활지원	한센병 후유증으로 인한 재활 수술 및 보장구제작 지원
한센시설운영	무의무탁 한센인 보호시설에 대한 돌봄·생활 지원
한센생활시설기능보강	노후화된 한센생활시설 개보수비 지원(누수·방수공사 등)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	정착마을 내 한센간이양로주택에 거주하는 한센인에 대한 급식비·난방비 등 지원
한센간이양로주택기능보강	노후화된 한센간이양로주택 개보수비 지원(도배, 장판 교체 등)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중위소득 60%이하인 재가한센인에게 생계비 지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한센병 환자 대부분이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차별로 인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로 이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한센병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았고, 해외유입을 통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한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검사와 감시를 의료진들께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세계 한센병의 날의 의미와 역사

‘세계 한센병의 날’은 1954년 프랑스의 세계적인 한센사업가이자 자선사업가인 라울 폴레로(Raoul Follereau)가 편견이 심한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한센병은 쉽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만든 날이다.

2025년 세계 한센병의 날 슬로건은 ‘단결(Unite), 행동(Act), 한센병 퇴치(Eliminate Leprosy)’로, 한센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퇴치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센병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고, 사회적 낙인을 없애는 것이 이 날의 주된 목표이다.

●○○한센병 관리의 국제적 과제

WHO는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 다발생 국가 23개국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등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국가에서 발생한 신환자는 전 세계 한센병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WHO는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환자 치료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외국인 신환자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을 통한 한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검사와 감시를 통해 한센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 한센병의 날은 단순히 질병을 알리는 날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을 되찾고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날이다. 우리 모두가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 개요

■ 2024년 한센병 사업대상자 현황

2024년 한센병 사업대상자는 7,135명으로 작년 대비 509명(6.7%)* 감소

* 2021년 8,574명 → 2022년 8,109명 → 2023년 7,644명 → 2024년 7,135명

■ 한센병사업대상자 성별·연령별 현황

(단위: 명, %, 세)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세 이상	평균 연령
계	명	6	13	23	166	968	2,203	2,861	895	80.9
	%	0.08	0.18	0.32	2.33	13.57	30.88	40.10	12.54	
남	명	6	11	16	97	556	1,167	1,443	375	80.4
여	명	-	2	7	69	412	1,036	1,418	520	80.9

■ 한센병사업대상자 성별·연령별 현황

(단위:명)

총계	재가	정착마을	시설(국립소록도, 생활시설 등)
7,135	4,706	1,897	532

■ 한센병사업대상자 성별·연령별 현황

(단위:명)

년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총계	2	4	3	6	4	3	5	2	3	5
내국인	2	2	2	6	0	1	2	0	1	0
외국인	0	2	1	0	4	2	3	2	2	5

■ 2023년 해외 지역별 신환자 발생 현황(WHO)

지역	신환자 수(명)	비율(%)	비고
아프리카 (45개국)	21,043	11.5	
미주 (43개국)	24,773	13.6	브라질(22,773명)
지중해 동부 (22개국)	2,829	1.5	
유럽 (36개국)	37	0	
동남아시아 (11개국)	131,425	71.9	인도(107,851명)
			인도네시아 (14,376명)
서태평양 (27개국)	2,708	1.5	
계 (184개국)	182,81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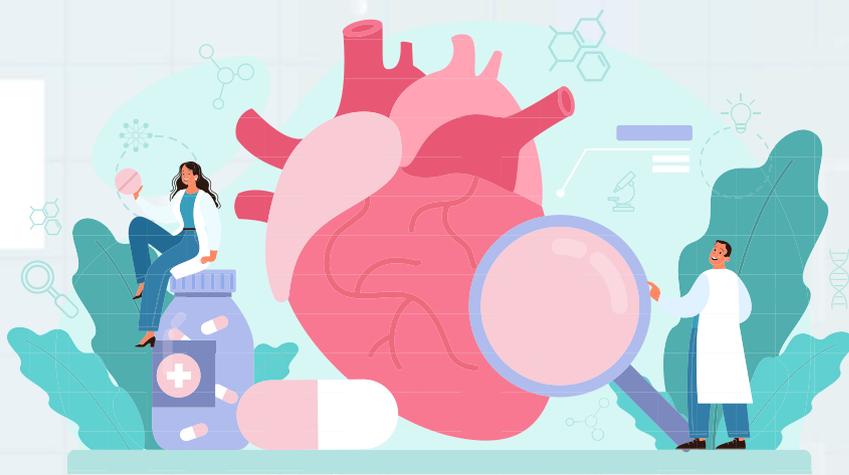
※ 출처: Global leprosy update, 2023(WHO) : Elimination of leprosy disease is possible-Tim to act!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심근경색증: 예고 없이 찾아오는 급성 질환, 막힌 혈관을 빠르게 여는 것이 관건

글. 김원 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센터 심장내과 교수
[출처 : 경희의료원보 프리포즈 2024년 겨울호 vol.452 中]



관상동맥 혈류 막히면서 심장근육의 괴사가 일어나는 병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에 혈전이 생기거나, 동맥경화증으로 순환장애를 일으켜 발작성으로 쇼크 상태가 되는 심장질환이다. 허혈성 심질환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도 한다. 동맥경화증은 혈관 벽에 지질(lipid, 기름때)이 쌓여 혈관의 내경(lumen)이 좁아지면서 발생한다. 다양한 크기의 동맥에 발생하는 국소적인 혈관 내막 질환인 동맥경화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혹은 급격히, 부드럽게 혹은 과격하게 진행된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반이 파열되거나, 균열이 생기면서 형성되는 혈전으로 관상동맥 혈류가 막힘으로써 심장근육의 괴사가 일어나는 병이다.

심근경색증 환자는 가슴 가운데나 왼쪽 가슴에 쥐어짜는 듯한, 짓누르는 듯한, 마치 고춧가루를 뿌린 것처럼 뜨거운 압박감을 느끼는 통증을 호소한다. 협심증과 달리 20~30분 이상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통증이 턱이나 어깨, 팔로 번져나가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발한, 어지럼증,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고령층이나 당뇨 환자의 경우 증상이 명확하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체한 듯한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호흡곤란, 무기력증, 평소와 다른 피로감, 구역질, 어지럼증, 소화불량 등의 증상도 심근경색의 신호일 수 있다.

특별한 증상 느끼지 못하다가 급사에 이르기도

급성 심근경색증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심근경색증은 동맥경화 병변의 정도가 심해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이어져 급사에 이르기도 한다.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약 50%는 이전에 아무런 증상이 없던 건강한 환자들이며, 나머지 50%는 협심증 증상이 있던 환자들이다. 어떤 환자는 수일 전에 시행한 건강 검진에서 운동부하 검사나 핵의학 촬영 검사 등을 하고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응급실로 내원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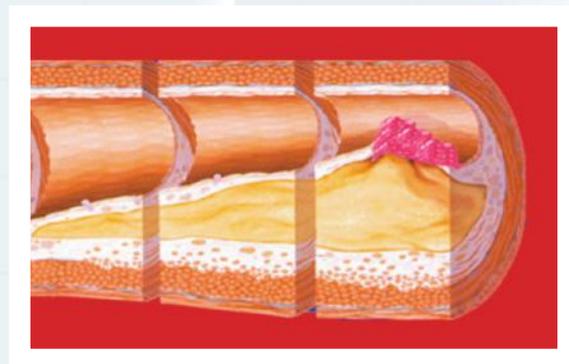
급성 심근경색증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유는 혈관 내경이 50% 내외가 심하게 좁아져 있지 않은 곳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 위험 부위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환자 중에는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정지한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 후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있고, 심장 근육이 괴사하면서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심장쇼크’로 응급실에 실려 오기도 한다. 신속한 응급조치를 통해 회복될 수 있지만, 돌연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돌연사란, 예기치 않게 증상이 발생해 1시간 이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돌연사의 원인 중 80~90%가 바로 급성 심근경색증이다.

심근경색증은 치료 약물 및 스텐트 기술 등의 발전으로 재발률 및 사망률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병원 내 사망률이 6~7%에 이르는 위험한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심근경색증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이다. 그 외 비만, 운동 부족,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있다. 심근경색증 발병 위험은 모든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평생에 걸쳐 누적된다. 위험인자가 많은 경우,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혈관기능의 장애, 손상

관상동맥 협착 유무 확인해 스텐트삽입술 등 즉각적인 치료 시행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면 어느 병원, 어느 의사라도 분초를 다투는 치료를 시작한다. 심혈관조영술(심장혈관에 가느다란 플라스틱 도관을 집어넣어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통해 관상동맥의 위중한 협착 유무를 확인하고, 협착이 심하다면 곧바로 병변 부위를 넓혀 혈액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심혈관 성형술, 스텐트삽입술, 혈전용해술을 진행한다. 어느 치료 방법이든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막혀 있는 관상동맥을 다시 열어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면 2시간 이내 열어주어야 심근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적어도 12시간 이내에 치료해야 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스텐트 시술은 관상동맥의 좁아지거나 막힌 부분에 금속망을 삽입해 혈관을 넓히는 치료법이다. 최근에는 의학 기술의 발달로 약물용 도포한 약물용출 스텐트를 사용하는데, 그 효과가 매우 탁월하다. 덕분에 재협착 현상(스텐트로 넓힌 부위에 새살이 차 다시 좁아지는 것)도 5% 미만으로 줄었다. 금속망이 몸 안에 남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앞으로 인체에서 수개월이 지나면 녹아 없어지는 스텐트가 개발될 전망이다. 결과는 불투명하지만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스텐트 시술 치료를 하더라도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만 시술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동맥경화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흉부외과와의 협력 중요, 위중하면 에크모 시행하기도

심근경색증 치료에 있어 타 진료과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 도저히 스텐트 시술로 치료하기 어렵거나, 심기능이 너무 약해 시술이 위험한 경우에는 흉부외과 의료진과 함께 혈관조영술을 통해 직접 환자 상태를 보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환자 상태가 위중하여 에크모(ECMO, 환자의 몸 밖으로 혈액을 빼낸 뒤 산소를 공급해 다시 몸속에 투입하는 생명유지장치)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함께 협력해 시술하고, 시술 후 진료까지 이어가야 한다.

우리 병원에 좌주간부가 막힌 심각한 심근경색증으로 내원한 환자가 있었다. 응급실에서부터 심폐소생술을 하며 혈관조영술 방까지 이동한 후, 에크모를 시술하고 성공적으로 스텐트 시술까지 마쳤다. 이 환자는 현재까지도 건강하게 외래 진료에서 만나고 있다.

의사와 환자, 환자 가족은 한 가지 목표인 질환의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동행자이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깊은 유대감 속에서 환자의 쾌유가 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심장내과 전문의 Q&A



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센터 김원 심장내과 교수

Q 무증상 환자도 급사할 수 있나요?

A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약 50%는 이전에 아무런 증상이 없던 건강한 환자들입니다. 동맥경화는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고,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도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언제라도 급격히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지요. 현재로서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 위험 부위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 얼마나 빨리 제대로 심폐소생술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Q 심근경색증의 전조 증상은? 만약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아쉽게도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은 알기 어렵고,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심근경색증의 특징적인 흉통 등이 발생하면 응급실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돌연사는 80% 정도가 집에서 발생하며, 60% 정도에서 목격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신속하게 응급 대처를 해야 합니다.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 국가예방접종 -

■ 예방접종 전·후 주의 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의료기관에 방문해 주세요

둘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자와 동행이 어려운 청소년은 보호자 동의서*와 예진표**를 미리 작성해 지참해 주세요.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관련 자료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전자 예진표 작성 가능

셋 의사에게 예진표 제출 후 예진을 받고,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는 접종한 의료기관에서 20~30분 앉거나 누워 있다가 귀가하세요.

넷 접종 권장 시기를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다음 예방접종 일정을 확인하시고,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다섯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이 의심될 때는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서 신고해 주세요.

※ 국가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심의하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관련 문의) 콜센터 1339, 043-719-8398~8399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 예방접종이란?

예방접종은 감염병에서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통해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자극하여 병원체에 대한 면역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백신의 역할

백신은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 또는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화하거나 사멸시킨 것으로, 백신을 접종하면 질환에 노출된 후와 마찬가지로 항체가 생성됩니다.

예방접종의 일반 원칙

- 표준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권장되는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대부분의 백신은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 여러 번 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다음 차수 접종이 지연되어도 예방효과가 감소하지는 않지만, 권장 시기보다 이른 접종은 항체 생성이 저하하여 예방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일부 약독화 생백신은 면역글로불린, 수혈 등 항체 함유 혈액제제를 투여받았다면 경우 접종 연기가 필요하므로, 접종 전 의사와 상의합니다.



■ 국가예방접종사업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NIP)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는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국민에게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연령별·시기별 권장하는 예방접종 종류

위탁의료기관·보건소마다 접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생아기

출생시

- B형간염(HepB) 1차

1개월

- 결핵(BCG, 피내용) 1회(4주 이내)
- B형간염(HepB) 2차

영유아기

2·4·6개월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1~3차*
- 폴리오(IPV) 1~3차*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1~3차*
- 폐렴구균 감염증(PCV) 1~3차
- 로타바이러스감염증(RV) 1~3차
- B형간염(HepB) 3차*

* 4가 혼합백신, 5가 혼합백신, 6가 혼합백신 형태로 선택하여 접종 가능

12~15개월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4차
- 폐렴구균 감염증(PCV) 4차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1차
- 수두(VAR) 1회

영유아기

12~23개월

- A형간염(HepA) 1~2차
- 일본뇌염 불활성화백신(IJEV) 1~2차
- 일본뇌염 약독화생백신(LJEV) 1차

15~18개월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4차

24~35개월

- 일본뇌염 불활성화백신(IJEV) 3차
- 일본뇌염 약독화생백신(LJEV) 2차

아동기

4~6세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 폴리오(IPV) 4차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차

6세

- 일본뇌염 불활성화백신(IJEV) 4차

11~12세

-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6차

12세

- 일본뇌염 불활성화백신(IJEV) 5차

청소년·성인

12~17세 여성 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1~2차 또는 1~3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접종 당일 자격 확인

65세 이상

- 폐렴구균 감염증(PPSV) 1회

고위험군

고위험군 해당자

- 장티푸스(VicPS) 1회(필요시 3년마다)
- 신증후군출혈열(HFRS) 1~3차
- 엠폭스(Mpox) 1~2차

절기접종

인플루엔자

- 65세 이상, 임산부, 6개월~13세 어린이* 1회
- * 9세 미만 어린이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경우 2회 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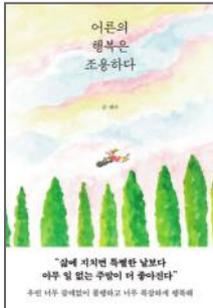
코로나19

-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1회
- * 단, 고위험군 중 이전 접종을 완료했던 6개월~4세의 경우 영유아 화이자 백신 1~3회 또는 모더나 백신 1~2회, 5~11세의 경우 1~2회 접종 필요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사업 안내 리플릿



요즘이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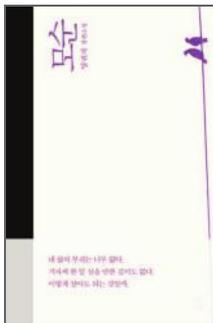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요란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사는 현명한 행복에 관하여

행복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

불행에 대한 수비력을 길러주는 58가지 인생 이야기

《1cm 다이빙》, 《흠 in 흠》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에세이스트 태수가 2년 만의 신작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로 돌아왔다. 이번 신작에서 저자 태수는 그동안 선보였던 이야기보다 한층 성숙하고 현명하게 삶의 행복에 가까워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새로운 것, 짜릿한 것, 남들보다 높은 곳에서 행복하고 싶어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꼭 그런 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불행해지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조용히 알려준다.



모순

인생은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

양귀자 소설의 힘을 보여준 베스트셀러 『모순』. 1998년에 초판이 출간된 이후 132쇄를 찍으며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을, 오래도록 소장할 수 있는 양장본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스물다섯 살 미혼여성 안진진을 통해 모순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본다. 작가 특유의 섬세한 문장들로 여러 인물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시장에서 내복을 팔고 있는 억척스런 어머니와 행방불명 상태로 떠돌다 가끔씩 귀가하는 아버지, 조폭의 보스가 인생의 꿈인 남동생을 가족으로 둔 안진진. 어머니와 일란성 쌍둥이인 이모는 부유하지만 지루한 삶에 지쳐 있고, 가난한 어머니는 처리해야 할 불행들이 많아 지루할 틈이 없다. 안진진은 사뭇 다른 어머니와 이모의 삶을 바라보며 모순투성이인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Quiz

한국한센총연합회와
똑똑한 두뇌 운동하고, 치매를 예방해요!

초성 맞추기(과일)
한글 초성 힌트를 보고 과일이름을 적어보세요.



사 ㄱ



포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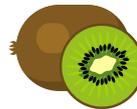
수 바



레 ㅁ



딸 ㄱ



키 ㅇ



바 ㄴ ㄴ



오 ㄹ 지

계산하기
금액이 같은 것끼리 연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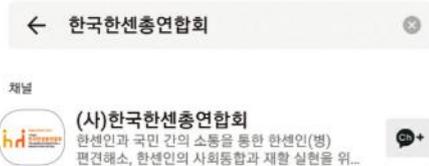
총연합회 카카오톡

+ 채널 추가하는 방법

1.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한다.



2. 한국한센총연합회를 검색한다.



3.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소식 받아보기



(사)한국한센총연합회

친구 81 명

한센인과 국민 간의 소통을 통한 한센인(병) 편견해소, 한센인의 사회통합과 재활 실현을 위한 단체입니다.

채팅하기

채널 추가

소식

정보

상담원 채팅

월,화,수,목,금 09:00~18:00

기관/단체 > 복지

<http://www.hansenkorea.org/>

02-1566-2339

hansen@hansenkorea.org

연락처시대에도

당신의 온기로 채워지는
따뜻한 세상



QR 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센 게시판

한센인(병) 관련 유물을 찾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운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한센인 또는 한센병 관련 유물을 기증(서약)받고 있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

한센시설(병원) 생활유품
또는 기록

한센가족 후원 또는 봉사
관련 자료



한센가족 작품
(문학, 미술, 음악, 사진 등)

기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한센인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소식지 '한센' 원고 모집 공고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응모 기간 : 상시 접수

■ 원고 내용 및 분야

- 한센인 관련 미담, 에피소드, 봉사 수기
- 한센인 창작 또는 한센인 소재 문학 : 시, 소설, 수필 등 제한 없음
- 한센인의 생활현장, 민원 등 지역 소식
- 한센인 관련 정책·학술·역사 자료
- 한센인 관련 다양한 분야의 칼럼
- 기타「한센」게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

■ 응모 방법

- 제출처 : 총연합회「한센」담당자
 -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 팩스제출 : (02) 1566-2032
 - 이메일제출 : hansen@hansenkorea.org
- 전화문의 : (02) 1566-2339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후원회장 김정남

후원계좌 국민은행 433401-01-330682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 본부 및 지부 주소

지부명	전화	팩스	주소
중앙회	1566-2339	1566-203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서울·중부지부	(02)532-6777	(02)532-90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20(방배동 202호)
부산지부	(051)245-8207	(051)245-820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4번길 3
인천지부	(032)529-0900	(032)522-085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 41 (간석동)
경기지부	(031)973-5329	(031)973-317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 802-1호
전북지부	(063)542-7822	(063)545-7820	전북 김제시 갈공길 21
광주·전남지부	(062)524-3485	(062)524-3484	광주광역시 북구 버들로 23 동방빌딩 3층
대구·경북지부	(054)971-8975	(054)977-8975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4길 5
울산·경남지부	(055)584-4333	(055)584-4332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방어산로 618

‘한센’ 편집 자문위원

위원장	우홍선(사무총장)
위원	박영립(법무법인 최앤박 대표변호사), 신재균(법무법인 서해 변호사), 옥춘광(작가)
기획	전희진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안식처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이제 평화로운 삶을 누리십시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안식처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아름다운 세상 당신의 시작입니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는 고령한세인을 위한 노인 친화적 환경의
 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네트워크로 고령한세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공감을 포괄할 수 있는
 전인적 관점의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사례관리
 인권개선운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실천
 보편적 협력기관 확대
 긍정적 환경마련



노후생활 안전보장

1:1 개별 서비스
 요양·보호·여가 지원
 안정적 생활환경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EVERGREEN WELFARE CENTER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116-15 | TEL : 043) 241-1300 / FAX : 043) 241-1302
 E-mail : egwc1300@egwc.or.kr | 홈페이지 : http://www.egwc.or.kr



하나하나의 나눔이 모여
더큰 베품과 사랑이 됩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늘 여러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